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미술관 주최 설날 축제에 지난해보다 15%증가한 1만 2천124명이 입장했다. 9일날 오후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헌팅턴 애비뉴까지 줄을선 관람객들

## 보스톤코리아 특집

### 두 한인회장 후보 지면 인터뷰

#### 박진영 후보 VS 장우석 후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영숙 기자 = 한인회장 출마를 결심해 보스톤 한인회의 회장가뭇을 끝낸 두 후보가 한인회장 및 한인회에 관해 진솔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인회장 후보는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 토리 대표(56)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장우석 변호사(48) 2명. 보스톤코리아는 두 후보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인회장에 출마했는지, 그리고 향후 한인회 운영은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각 후보들과의 면담을 가진 후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 보내 후보들이 자신들의 향후 한인회 운영방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쪽을 택했다. 한인회장은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한인회장직 수행에 대한 자세와 의지, >>2면, 4면에서 계속

## 설날 축제 방문객 1만명 훌쩍 넘었다

### 보스톤 미술관 개장 이래 3번째 많은 인파 세배시범과 우리가락 무용단 연주로 큰 호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주최한 설날축제가 지난해보다 무려 15% 증가한 1만 2천124명 입장 기록을 세우며 대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2월 9일 토요일 설날 축제 행사일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이 헌팅턴 애비뉴 거리까지 줄을 길게 늘어서서 행사의 인기를 반영했다. 미술관측은 이번 설날 방문객이 보스톤미술관 개장 이래 3번째 많은 방문객 기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 보스톤 미술관과 한국, 중국, 베트남의 문화 단체들이 협력하여 준비한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미술관측은 무료 입장을 통해 미술관 전체를 개방하였다. 방문객들은 명품 예술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아시아 3개국의 설날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가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우 가계워킹 한국  
4/12 보스톤-인천 직항 취항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  
\$1,199~

NEW 2019  
고국관광  
개키지  
예약가능!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예약은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과 동일합니다.  
국/외선/항공료/세금/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예약은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과 동일합니다.  
예약으로, 입장료, 숙박비/세금/기타/예약비/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예약은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과 동일합니다.

IACE TRAVEL 617.424.8956  
info@iace-travel.com | www.iace-usa.com | 영문시간: 월-금 9시-12시/토-일 10시-12시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보스톤코리아 특집 : 두 한인회장 후보 지면 인터뷰

▶▶1면에 이어서

계획에 대한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공통질문 7문항과 각 개인에 대한 질문 1문항 총 8문항을 주었고 가능하면 100 단어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들의 질문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편집

자가 직접 답변내용에 관해서는 제한 또는 편집하지 않고 답변의 길이에만 제한을 두었다. 일부 답변은 100단어를 넘겼어도 과다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신도록 했다.

두 후보는 공통질문에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답을 주었지만 크게 상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병학 전 한인회장이 추진하는 2월 18일 우편 한인회관에서의 추천위 구성 모임과 한인회장 경선에 대해서는 180도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재관위와 한인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각기 다르고 독특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후보 답변을 세심히 읽어보는 것도 흥미롭다. 현 한인사회의 역학관계와 그동안 한인회장 가문의 원인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가며 진솔하게 답변해준 두 후보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박진영 대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인회"



1. 왜 보스톤 한인회장이 되고자 하나? 그리고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 오랜 기간 한인회장 공석으로 많은 분들이 한인회장직을 권유해 주셨다. 그동안 크고 작은 한인사회의 교류를 통해 많이 배우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한인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약하나마 한인회장으로서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 한인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고 다음 세대가 한인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자 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적 없다. 단지 한인회보 편집장으로 세 분의 한인회장과 함께 하며 한인회에 좀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인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남보다 조금 더 고민해 본 정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한인회들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번 한인회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인회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2. 한인회장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 첫째, 소통: 한인회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계층별,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한인회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한인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인 한분 한분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보스톤코리아 등 지면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건이 허락 된다면 연 4회 계간지 형태의 회보를 제작하여 한인회의 일들을 소상히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 둘째, 화합: 한인사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역학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면서 화합을 이끌어 내겠다. 또한 세대간 의사소통을 특유의 긴 세대의 장점을 살려 청년층에게는 노장년층의 입장에서 노장년층에게는 청년층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셋째, 서류작업의 완비: 한인회의 공백으로 비영리단체 등록, 세금보고 등 많은 서류상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다음 한인회는 행정 서류상의 걱정 없도록 모든 것을 차분히 완비해 놓겠다. 또한 회칙이 개정된지 오랜 시간이 흘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또한 정비해 놓겠다.

3. 현 한인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 한인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다른 단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SNS의 발달 등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급변으로 세대간 소통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예전과 ▶▶4면으로 계속

장우석 변호사

"한인회를 향한 한인들의 단한 마음을 열겠다"



1. 왜 보스톤 한인회장이 되고자 하나? 그리고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문화 교류 및 친선을 할 것이며, 한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잘 펼칠 수 있도록 한인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한인 변호사회를 통해 한인사회에 2012년부터 봉사해왔다. 뉴햄프셔 한인회 이사로 봉사할 때에도 한인 변호사회와 함께 동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홍보노력을 해왔다.

평통위원을 지내면서, 한인회장이 우리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한인회장이되면 한인사회를 화합하고 미국 주류사회 앞에 당당히 나서서 보호할 것이다. 소수민족을 주류사회에 알린다는것은 힘들겠지만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의미있는 일을 할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오랜 시간동안 포기없이 평통에 기여한 노력으로 자문위원들의 단했던 마음이 열렸다. 한인회를 향한 한인들의 단한 마음이 열리도록 하겠다.

2. 한인회장이 되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 여러 한인단체들이 목적에 맞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임원진이 협력하여 보조할 것이다. 특히 한인사회의 큰 주축인 한미노인회, 국제선교회, 시민협회, 교역자협의회, 민주평통, 한국학생회, 재향군인회, 이외 여러 직능단체들과 소통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며, 나아가 보스톤 지역의 중국과 베트남 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소수민족이 직면하는 애로사항 등을 함께 극복하도록 하고, 미국인들에게는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3. 현 한인사회의 당면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만연한 문제는 의식인데, 권리는 미국식으로 누리고, 의무는 한국식으로 피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식 "절차와 규정" 을 토대로 한 한국식 "정과 의리" 가 함께 꽃피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살면서도 한인의 삶이 그리운 이유는 한국말을 통해 전달되는 그 독특한 "정과 의리" 때문이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삶이 난처하게 되는 이유도 "정과 의리" 때문이다.

미국사회에 사는 한인들은, "절차와 규정" 으로 가득한 풍토를 불편하거나 낯설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 "정과 의리" 가 꽃핀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절차와 규정" 을 무시한채 "정과 의리", "꿈수와 편법" 을 부리는 것이 사라지게되고, 또 누가 꿈수부릴까 하는 걱정도 필요없게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은 사회는 안정성이 결여되고, 불안정한 사회다. 원로, 고문들께서 "고인물은 썩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잘 ▶▶4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보스톤코리아 특집 : 두 한인회장 후보 지면 인터뷰

**박진영 대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한인회"**

▶▶2면에 이어서

같은 사회적 화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번 한인회는 물리적인 행사나 모임 보다는 세대간, 계층간, 분야간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한인사회는 미국 속의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정치력 신장 등 미국 사회와의 교류가 매번 화두로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들은 2세들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한국학교, 한인 정치력 신장에 앞장서는 시민협회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직능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한인회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한인회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이다. 매번 한인회장이 없어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보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일하고 보람을 찾아간다면 더 이상 회장 없는 한인회로 고민하는 한인사회는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임원진인데 어떻게 구성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달라.

▶ 다음 한인회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젊은 층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인회장을 포함한 한인회 임원은 한인사회를 위해 굳은일 마다하지 않는 스태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인사회를 위해 자기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 없이 마음을 열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미 몇 분의 젊은 인재들이 나와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아 주었다. 그들과 함께 회장이 아닌 함께 하는 동반자로 열심히 한인회를 이끌어 보겠다.

5.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인회장 추천위의 구성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향후 선관위 구성 후 공탁금을 납부하고 경선으로 진행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실지 말해달라

▶ 한인회장 추천위의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꼭 내가 아니라도 다음 한인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월 18일(월요일) 6시 반에 한인회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열린다하니 중지를 모아준다면 누가 되었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하겠다.

경선의 진행은 반대한다. 경선은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한인사회가 편이 갈릴 수도 있다. 경선으로 간다면 나를 어렵게 내린 나의 결정을 철회하겠다. 경쟁까지 해 가면서 한인회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6. 현 한인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한인회관의 건립을 초기부터 지켜 봐와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있다. 일부에서는 한인회관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인회관이 없을 당시 회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주소와 연락처 등 우선 고정적 주소에 회의라도 할 수 있는 한인회관이 필요했다. 물론 모금된 금액도 지금의 건물을 살 형편 밖에는 안되었다.

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지금 현 상태의 한인회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활용성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이번 한인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또한 한인회관 문제는 한인회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의견이 나뉘면 재관위든, 이사회든, 필요하다면 공청회든, 토론회든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

7. 향후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와 한인회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가?

▶ 재관위와 한인회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재관위는 한인회관을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보호하면 되고 한인회는 한인회관을 잘 사용하고 한 사람의 한인이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면 된다. 궁극적으로는 한인회장이 독단적으로 한인회관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명확한 절차를 만들어 한인회 내에 재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 (각 개인에 대한 질문) 박진영 후보: 박 후보는 한인사회에 정통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로 한인 사회 많은 인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특히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진행에 대한 지적을 피하는 등 대결 국면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칙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대결은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 원칙이 있다고 모든 일이 대결로 풀리는 건 아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려 나간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모든 문제는 원만히 해결해야 뒷말이 없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나는 그것을 대결국면을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결보다는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운영해 나갈 것이다.

**장우석 변호사**

**"한인회를 향한 한인들의 닫힌 마음을 열겠다"**

▶▶2면에 이어서

알고 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임원진인데 어떻게 구성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달라.

▶ 최소한의 임원으로 운영할 것이다. 한인사회에 관심은 있으나 기성세력들과 연결이 힘들어 나오지 못했던 4050세대를 주축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이들은 여러 단체장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또, 보스톤의 매력에 맞춰, 중/고등학교 학부모회 담당, 대학교/대학원생 담당, 한-미-일-북 역사조명 담당, 로건 공항 출입국 및 추방대상 관련 동포/유학생 담당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인회장 추천위의 구성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향후 선관위 구성 후 공탁금을 납부하고 경선으로 진행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실지 말해달라.

▶ 추천위는 후보가 없을 때 필요했던 위원회다. 지금은 4050세대 후보가 두명이나 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선관위를 꾸려, 한인회칙을 따른다면 혼선이나 불필요한 분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관위가 구성되어 공탁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진다면, 이를 존중하겠다. 공탁금은 펀드레이징을 통해 창출할 예정이다.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 회장과 이사장 등이 없는 예외상황이므로 양 후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6. 현 한인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인들에게는 당연히 상징성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모금된 건립기금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재산인 만큼, 이를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지금 한인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회관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선대 한인들의 노력을 허사로 돌려놓을뿐 아니라 의무에 태만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창피하다. 회관의 운영시간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모른다. 한인회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에게 쉬운 접근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관리인이 있지만, 누가 사용하는지는 모른다. 재관위 회의할 때 모이는 것으로 알지만 이의 누가 모이는지 모른다. 그동안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입 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가, 최근에 매각취소가 결정되어 현 재관위원장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탓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손봐야 한다. 저는 한인회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회관의 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7. 향후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와 한인회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가?

▶ 제가 알고 있는 두 단체 간의 현실적인 문제는 \$15,000 부채(전 한인회 부채)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일반 한인들에게 열람 가능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40대 한인회를 대표할 회장에게, 재관위는 또다시 부채상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39대 한인회장 이후로 40대 한인회를 이끌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 제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저는 40대 한인회장이 되면 한인회를 위해서 당연히 채무관련한 부분은 채권자들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채무부분은 오랫동안 다루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 지면 인터뷰 보도 후 재관위에서 \$15,000 채무에 대한 추심입장을 후보자인 제게 제공한다면 조속히 답변을 제출하겠다. 아니면 한인회에서도 일했고, 현재는 재관위원 이기도 하신 박 후보님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고 나서 추가 답변하겠다.

8. (각 개인에 대한 질문) 장우석 후보: 장우석 후보는 비교적 한인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보스톤 및 매사추세츠 한인사회에 대해 경험이 적다. 일을 추진할 때 철저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원칙주의자로서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인회장이라는 리더십은 원칙을 중심으로 언제든 유연해져야 할 때도 있다. 이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유학생으로 와서, 한인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한지는 10년정도 된다. 2012년에 직능단체인 한인변호사회를 만들어, 한인변호사들과 친목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때 동참한 김연진, 성기주, 정선진 변호사 덕분에 오늘의 장우석이 있다. 이제는 오래된 친구들 같으며, 분기마다 한번씩 모여 각자 겪은 한인사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다양한 얘기를 한다. 한인 개별단체에 참여한 기회는 적지만, 그렇다고 한인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부족하지는 않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안다.

뉴햄프셔 한인회 이사로 한 4년간 봉사하면서 배웠다. 저는 질문내용대로 원칙 속에서 매우 유연하다. 다만 원칙을 무시하는 융통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현재 한인사회가 어려운 이유는 융통성만 강조하고 원칙은 등한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꼼수가 관건이다.

editor@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 2019 건강도 부탁해

NEW YEAR SPECIALS

2월 20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3+1**

어브리타의 1박스(3포)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Event 3

천녹정 구입시  
2번째 제품은 **50% OFF**  
(첫째가 천녹정 품종이 아닙니다.)



\$867.80 - \$650.48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시 다음날 14시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다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oston, MA 02133



#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Seoul Seolryeong Tang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Seoul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뉴햄프셔 한인회가 2월 9일 키터리커뮤니티센터에서 주최한 신년하례회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 뉴햄프셔 주지사 17년째 한인의 날 선포

## NH 한인회 신년하례 떡국 나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햄프셔 한인회가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을 초청, 신년하례회를 갖고 뉴햄프셔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를 알렸다. 지난 17년간 주지사도 바뀌고 한인회장도 바뀌었지만 올해도 뉴햄프셔 한인의 날 선포 전통을 이어갔다.

박선우 한인회 고문이 대독한 선언문을 통해 크리스 서누뉴 뉴햄프셔 주지사는 키터리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인회 신년하례식에서 2월 9일 토요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했다. 서누뉴 주지사는 또한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한 조은경 한인회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서누뉴 주지사는 한인들이 뉴햄프셔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뉴햄프셔 한인회는 한인들의 뉴햄프셔 사회 정착을 도왔다고 지적하고 2백만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미국사회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한인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해마다 참전용사를 행사에 초청하는 관례를 지켜 올해도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했으며 보스톤총영사관 김용현 총영사는 2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전달하며 한국정부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 메달은 조지 뷰로우, 러셀 웹스터 2명의 참전용사에게 전달됐다.

조은경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뜻 있는 동포들이 모여 한국의 국경일도 기념하고, 무료 법률세미나도 열고, 체육대회도 열며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참전용사보은행사를 개최해 주류 언론의 관심과 주정부로부터 모범적인 한인단체로 인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회장은 “차세대 지도자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용현 총영사는 “오늘 설날의 전통을 지키고 뉴햄프셔 주지사의 2003년 이래 선포한 한인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뉴햄프셔 한인회에 축하를 전한다”고 말하고 “뉴햄프셔 한인회의 지도력과 한인들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해 치하한다.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바이올리니스트 제살리나 팬 양의 연주를 듣고 설날음식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현 총영사 내외를 비롯 이종섭 영사 내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이재영 회장 내외,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내외, 한순용 평통수석부회장 및 한선우, 김성혁 전 평통회장, 윤철호 노인회장, 이기환 노인회 이사장, 장수인 보스톤필하모니 단장, 민유선 전 노인회장 내외 등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뉴햄프셔 한인회 관계자들, 뉴햄프셔 교회 한상신, 장의한 목사 등이 참여해 행사를 축하했다.

editor@bostonkorea.com



뉴햄프셔 한인회관 건립기금을 투명하게 공개한 회관건립기금현황보고서. 2007년 첫기부자부터 모든 기부자의 명단과 금액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 NH 한인회 회관 건립기금 \$98,254

### 2007년 최초 기부자부터 모두 기록 건립기금 현황 투명하게 공개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햄프셔 한인회가 회관 건립기금 현황보고서를 통해 현재 총 기금보유액이 \$98,254임을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 회관 건립위원장 박선우 고문은 2월 9일 뉴햄프셔 신년하례회에서 회관건립기금 현황보고서를 통해 피델티 보유 주식 \$94,718과 시티즌스뱅크 \$3,136 그리고 보유한 현금 \$400을 합쳐 9만8천254달러의 현황을 공개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2007년부터 피델티 밸런스 뮤추얼 펀드 (FBALX)에 투자해 60.43%인 \$37,011의 수익을 올렸다. 박 고문은 “지난해 연말에 주식이 활황이었을 때는 보유 금액이 10만불이 넘었지만 연초 하락으로 10만불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뉴햄프셔 한인회는 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한 200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기부한 전원의 명단과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했다. 최초 기부자는 그린랜드교회로 \$500이었으며 마지막 기부자는 박선우 회장으로 \$300이었다.

뉴햄프셔 한인회관에 기부한 개인은 72명이며 일부 익명의 기부자도 있었다. 또한 21개 한인단체가 기부했다. 이를 통한 실 모금액은 \$61,243이었다.

박 고문은 “뉴햄프셔 한인회관은 93번 도로 양옆에 소재한 셸림에서 맨체스터 사이의 건물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은 이사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itor@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제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날 보스톤한미예술협회가 진행한 세배 시연과 한국전통 무용 공연이 각각 3차례 및 두차례 열렸다. 공연 티켓도 매진되어 상당수 한인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설날 축제 방문객 1만명 훌쩍 넘었다

▶▶ 1면에 이어서  
한국축을 대표해 진행한 한국 설날 행사는 세배와 한복입기, 한국무용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전 11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3시, 3회에 걸친 세배 시범에는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받았다. 시범 후에는 방문객들이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성요한 한국학교(교장 이현경)의 협찬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조부모 세대부터 어린이 그리고 한복 도우미까지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였다.

뉴저지 소재의 우리가락 한국무용단은 북춤, 장구춤 등을 레미스(Remis)와

알폰드(Alfond) 오디오룸에서 두차례 연주해 600좌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는 세배 시연과 한국무용 공연장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과 연주자들을 격려했으며 영사관 측이 기부한 부채와 손가방 등의 기념품은 많은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이 외에도 중국의 사자춤과 쿡후 시범, 베트남의 종이접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보스톤 미술관에서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참여 디렉터로 일하는 린다 애플(Linda

Apple)씨는 올해에도 성공적인 축제였음에 큰 만족을 표하며 한미예술협회와 한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내년에도 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은 “하루 중 일 세배 시연과 한복 입는 것을 도와준 한국학교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 전하였으며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한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이야기 하였다. hsb@bostonkorea.com



### 3.1 운동 100주년 보스톤 커먼 플래시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톤행동(이하 보스톤행동)’은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플래시몹 보스톤아리랑을 보스톤 커먼(Boston Common)에서 개최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보스톤행동은 “우리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자유, 평등, 평화, 인권의 가치와 정신을 표현하고자 연주와 합창이 어우러진 플래시몹을 개최한다”며 만 10세 이상의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3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보스톤 커먼 플래시몹에서는 아리랑을 비롯해 2곡을 연주할 계획이다. 참가

를 원하는 한인 또는 학생들은 bostonpeaceaction@gmail.com에 이름과 참여약기, 합창 등 선택사항을 적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행사 당일 연주할 악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3.1운동 백년을 맞아 보스톤의 사실상의 1번지인 보스톤커먼에서 역사적인 플래시몹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 3월2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보스톤 커먼  
연주곡: 아리랑 외 2곡  
참여 신청 : bostonpeaceaction@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프리미어에게 물었다: 2019년 보스턴 부동산 전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19년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뉴스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동안 바 이어스마켓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독자들을 위해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에서 주요 한인부동산 회사 중의 하나인 프리미어리얼티의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함께 2019년 부동산 시장을 미리 살펴 보았다. 인터뷰에는 나원태 프리미어리얼티 대표와 줄리 전, 크리스틴 손 에이전트가 참여했다.

2019년 올해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실제 시장상황은 어떤가?

손: 매사추세츠 주내 밀리언 이하 주택의 경우와 특히 렉싱턴, 뉴튼 지역 1백 20만불 이하의 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고급 주택 시장은 조금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만약 장래에 거주할 집을 찾는 경우 시장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 주택의 경우 장기 투자이므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된다.

전: 같은 의견인데 많이들 경기 침체 떨어지면 사겠다골 하시는데 보스턴 지역은 그런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레이터 보스턴의 경우 워낙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바이오 및 로봇 테크놀로지 메카이기에 인구의 외부 유입이 많다. 산호세 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신다.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연방 준비은행도 올해 이자율 조절을 한 번으로 줄이겠다며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자율이 낮고 봄마켓이 시작되니까 좋은 집을 찾으시면 될 것 같다.

외부 유입이 많으니 최근에는 렌트 수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한인 분들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마땅한 집이 없

면 계속 구입한다. 그런 고객들이 존재하는 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 집을 구입 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할 수 있지만 원하는 위치가 아닌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예를 들면 길가의 소음 등 위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한다. 되팔 때 후회할 수 있다. “앤더버에 백만불을 주고 집을 사셨던 분이 아 렉싱턴에 집 사셔야 하는데...” 이런 후회하신다.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동네를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집을 보고 도로를 동시에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외 팁으로 집을 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여름에 사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창이 이중창인지, 문에 스톱도어가 있는지 등을 보고 구입해야 한다. 지붕이나 보일러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구입후 지붕을 바로 교체하면 추가 2만불이 소요된다. 저희 같은 에이전트는 좀더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 수 있다.

손: 보스턴 지역이 바빠다 보니 버젓(Budget) 내의 집을 보면 상태가 별로인 경우가 많아 버젓이 점점 올라간다. 집을 사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모기지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동네를 결정하고 동네에서도 어느 위치가 생활권에서 가장 편리한지 공부한다면 집을 구입하는 등 고칠 수 없는 부분을 주의하시면 된다.

보스턴 거주가 오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잘 모른다. 동네에서도 어디가 좋고 그런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집들이 오래되고 낡아서 100퍼센트 만족하기 어렵다. 구매자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주시면 집을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프리미어리얼티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1월 28일 보스턴코리아 사무실을 방문, 새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은, 줄리 전(우측), 크리스틴 손(좌측) 에이전트

주택 구매시 보통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이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적 여유를 두고 주택 구입을 시작해야 하는가?

전: 집을 정하고 나면 클로징 후 2달 정도에 집이 자기 것이 된다. 집을 고르기 전에 다운페이먼트 등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경우 3-6개월 정도 본다.

손: 길게는 2-3년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는 3-4개월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

주택 구입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

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어카운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다. 대출은행들은 지난 2-3개월 통장을 보는데 500이상, 1,000의 거래는 모두 설명해야 하니 2-3개월 전에 어카운트를 모아두면 좋다. 또한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보유하셔야 한다.

나: 저희 회사는 손님에 맞춰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해서 모기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세금보고를 조금씩 올려서 하면서 준비를 한 후 모기지를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소득대비채무비율(Debt To In-

come) 등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모기지 브로커가 있으니 파이낸스 고객의 개인 정보 모기지 브로커와 연결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두 에이전트 분들 본인 소개를 해달라.

손: 자격증 취득은 3년, 경력이 1년 정도다. 나 대표를 만나면서 전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 고객만족이다. 클로징이 끝이 아니다. 구입하신 후 공사 등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한다. 고객 만족이 만족하게 되면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이다.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집을 3년이나 아주 오래 걸려 사게 됐다. 오픈 하우스 돌아다니면서 쉽지는 않지만 재밌다는 생각을 했다. 그냥 집 사고 공사하고 이러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다. 애들이 어려서 일을 못했는데 나대표님을 알게 돼서 지난 1년동안 배우면서 제대로 일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구입했는데 서비스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며 놀라고 있다. 고객입장에서 ▶▶2면으로 계속

## 마음대로 골라본다

# \$14<sup>99</sup>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b>\$14<sup>99</sup></b>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b>\$24<sup>99</sup></b>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b>\$34<sup>99</sup></b>
--	--	---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전상품 무이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 617.543.8106

##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8면에 이어서

받는 서비스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전: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을 살 때 집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다. 한인 리얼터 분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에이전트 하는 일이 다르고 전문적인 일인 것을 알게 됐다. 집을 고치는데서도 부동산 전문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격증 2015년에 취득했고 4년 정도 일했다. 일을 하면서 나대표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늘 집을 매매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나대표님과 상의하고 해서 늘 문제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저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비즈니스 세탁소 거래도 많이 한다. 한국 업소 사업주들과 이야기 하면서 한인인들의 비즈니스 성공담도 많이 듣고 그것이 흥미롭고 훨씬 더 많은 보람을 느낀다.

주택과 관련된 주요 팁: 현재 사는 집에 단열이 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면: mass-save.com 에 보면, 단열제(Insulation) 설치와 기존의 오래된 보일러나 워터히터 등을 열효율 높은 제품으로 교체 하는데 리베이트(Rbate) 해주는 프로그램 있으니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2750불까지 리베이트 해준다.

"네스트(Nest)" 라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안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 많은 집들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기존의 온도조절기(Thermost)를 이것으로 바꾸고 있다. 이 제품을 mass-save.com에서 2019년 말까지 100불 리베이트 해준다.

editor@bostonkorea.com

# 추운 겨울에도 푸르른 실내 정원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뉴잉글랜드의 추위를 피하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소개한다. 인근의 식물원이나 박물관, 동물원 내부에 위치한 실내 정원을 방문하면 따뜻하게 조절된 온도에 통유리를 통과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과 더불어 이국적인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한겨울날의 백일몽같은 경험을 선사해 줄 실내 정원 6곳을 소개한다. 이는 마미포핀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의 그린하우스

베네치아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은 갤러리 전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안뜰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야외 안뜰의 명성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내 정원인 '도로시 맥지 그린하우스(Dorothy McGee Greenhouse)' 에서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향기를 풍기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실내 정원 내부에 위치한 중국식 로지아는 따스한 햇볕과 식물, 아시아 예술품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계절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280 The Fenway  
Boston, MA 02115  
617-566-1401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의 열대우림과 버드월드

프랭클린 동물원 내부에 위치한 열대 우림은 한겨울에도 화씨 72도와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책로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의 그린하우스

를 따라 걸으면 폭포와 식물 그리고 고릴라를 비롯한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걸으며 둘러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오래된 건물 내부에 위치한 버드월드(Bird World)에서 다양한 새들을 발견하는 재미와 더불어 건물을 타고 울리는 에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동물원 입장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Franklin Park Zoo  
One Franklin Park Road  
Dorchester, MA 02121  
617-541-5466

타워힐 식물원

겨울에도 방문객이 많은 식물원으로 내부에 18세기 스타일의 온실 오랑제리(Orangerie)와 10월에서 5월까지의 온대 및 아열대 식물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나리아(Limonaia)가 있다. 실내 정원에서 나와 겨울 정원 마당을 산책할 때 스노우 슈즈나 스키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Tower Hill Botanic Garden

11 French Drive  
Boylston, MA 01505  
508-869-6111

라이먼 에스테이트 그린하우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실이 있는 곳이다. 총 4개의 온실이 있으며 희귀 난초, 동백나무, 포도 및 감귤류 식물 등이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중의 일부이다. 고품질 난초 재배 키트를 비롯한 원예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Lyman Estate  
185 Lyman Street  
Waltham, MA 02452

보스톤 과학박물관의 나비 정원

과학박물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나비 정원(butterfly garden)은 찰스 리버가 내려다보이는 실내정원으로 수십 종의 특별한 나비 종들이 있다. 나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줄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운이 좋다면 나비가 어깨나 손에 살포시 앉을

수도 있다. 박물관 입장료 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MUSEUM OF SCIENCE  
1 Science Park  
Boston, MA 02114  
617-723-2500

버터플라이 플레이스

발렌타인데이에서 콜롬버스의 날 사이에 열리는 '버터플라이 플레이스' 는 화씨 85도 정도로 유지되는 온실로 전 세계에서 온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나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는 직원이 있는 한편 알과 애벌레, 고치 및 번데기에 관한 전시가 열린다. 기프트 샵에서는 나비 부화 키트를 판매하고 있으니 집에서 나만의 서식지를 만들어 볼 기회다.

The Butterfly Place  
120 Tyngsboro Road  
Westford, MA 01886  
978-392-0955

sun@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좋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이메일 : huream@huream.kr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 MA주 기업인들 경제 확신도 낮아져

## 2016년 10월 이후 최저 기록 기업 환경 변화에 어려움 느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기업인들이 미국과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하던 태도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기업인들의 경제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

지난 1월 매사추세츠 산업 연합(Associated Industries of Massachusetts)의 비즈니스 신뢰 지수는 0.9포인트가 하락해 57.7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아직 비즈니스 신뢰 지수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은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비즈니스 신뢰 지수는 6.4 포인트가 하락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매사추세츠 산업 연합에서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레이몬드 토르토는 “매사추세츠 주는 2018년 4분기에 경제가 2.1% 성장했고 계속해서 생산 능력의 최대치까지 경제가 운

영되고 있다” 며 “그러나 동시에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노동 시장에서 인구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 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고 가족의 응급 상황에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가가 어떻게 적용될지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산업 연합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바뀌면서 심각한 영향이나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매사추세츠 기업인들의 비율이 10%였다. 71%의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따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산업 연합은 최근 2년 동안 의료보험과 최저 임금, 유급 휴가 정책, 법인세 제도 등이 바뀌면서 많은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 기업인들의 경제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평균 4.76%의 이자율로 모기지 대출을 받고 있다

## MA 모기지 이자율 3번째로 낮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모기지 이자율이 미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 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평균 4.76%의 이자율로 모기지 대출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주보다 모기지 이자율이 낮은 주는 캘리포니아 (4.74%)와 뉴저지 (4.75%)주밖에 없다.

미국 내 50개 주의 평균 모기지 이자율은 4.85%이다.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주는 뉴욕으로 4.9%를 기록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5번째로 높은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있다. 평균 34,029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274,996달러를 대출 받았다. 집을 살 때 미국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주는 뉴욕으로 평균 43,404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로 지불하고 있고, 그 뒤로는 캘리포니아가 41,502달러였다.

2018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거래된 싱글 하우스 주택의 중간값은 385,000달러였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축 개업 25주년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 617.868.2500, 617.868.2600

###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 진통제 오남용에 따른 사망자 감소

## 2년 연속으로 사망자 줄어들어 사망자 89% 펜타닐에 양성 반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8년 진통제 계통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2017년에 비해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진통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2018년에 진통제 계통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974명이었다. 2017년에는 2,056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2,099명이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이 같은 수치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약물 오남용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진통제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진통제 오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합성 진통제로 심각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처방된다.

진통제 오남용 사망자 중에서 약 89%의 사망자가 펜타닐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5년 전에 비해 펜타닐 사망자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진통제와 관련한 사망자가 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 이후 진통제 처방전 발급이 35%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진통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고, 펜타닐의 존재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약물 오남용 사망자는 약 3/4 이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주된 연령대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이다. 매사추세츠 인구 구성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이다. 또한 2년 동안 약물 오남용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흑인 남성 사망자 수는 45% 증가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에서 2018년에 진통제 계통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974명이었다



## 애플, 뉴스서비스 수익분배 두고 언론사와 줄다리기

### 언론사, 구독자 정보 접근권 제한도 우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애플이 뉴스 구독서비스에 있어 제한한 수익 조건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스 구독서비스를 통해 아이폰 판매 부진을 만회하려는 애플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용 넷플릭스'(Netflix for News)라 불리는 애플의 뉴스 구독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월 사용료를 내면 뉴스를 무제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올 1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의 임원은 월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슷한 월 10달러(약 1만1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뉴스 구독서비스를 통해 아이폰의 부진한 판매를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 달 4분기 아이폰 판매 매출이 15% 줄어 519억 8000만달러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수익이 감소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사들은 애플이 제시한 수익 조건이 애플에 너무 유리하다는 입장.

소식통에 따르면, 구독 매출의 약 절반은 애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용자들이 뉴스에 사용한 시간에 따라 언론사들에 분배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는 신용카드 정보와 이메일 주소 등 구독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WSJ은 전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언론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도 WSJ는 기술 플랫폼은 (언론사에) 구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애플과 언론사가 협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yellowapollo@news1.kr

#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톤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톤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 빌 게이츠, 부유세 찬성하나 극단적일 필요 없어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최근 미국에서 한창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유세(wealth tax)와 관련해 '세계적인 갑부' 빌 게이츠가 입을 열었다.

부유세는 사회민주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의 후예를 자칭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과 2020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경우 연 10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최고 소득세율인 35%의 두 배인 70%를 물리자는 공격적인 주장을 했고, 워런 의원은 연 소득 5000만달러 이상이 되는 부자들에게 2%의 부유세를 물리자고 주장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12일 더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세제 개혁안은 '큰 그림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세제안이 나올 경우 "오히려 부유층이 소득을 감추거나 역외로 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며 그 같은 생각은 "훨씬 진보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게이츠는 "부자들의 수입엔 통상 수천 상의 오류가 있다"고 했다. 부자들의 경우 받는 월급은 많지 않고 대신 주식과 다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상위 400명의 부자는 20% 정도의 세율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 따라서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



빌 게이츠

독자 일부에 대해 매우 높은 소득세율을 물리자고 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일 수 있다는 얘기가.

게이츠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부유세와 부동산세,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 등을 바꿀 순 있다"고 말했다. FICA 세금은 사회보장세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득 창출에 대해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914@news1.kr



아프리카 흑표범

## 110년만에 나타났다... '블랙팬서' 아프리카 흑표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마블 시리즈 '블랙팬서'의 주인공 아프리카 흑표범이 11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흑표범은 영화의 배경이 된 와칸다와 매우 가까운 케냐에서 포착됐다. 마지막으로 흑표범이 촬영된 건 1909년이였다.

13일 CNN에 따르면 이 흑표범은 미 샌디에이고 동물원 소속 보존 과학자 니 필포드 연구팀이 표범 서식지를 몇 달 동안 지켜보고 기다린 후에 촬영할 수 있었다. 당초 원격 카메라는 케냐 라이키 피아 카운티 보호구역 내에 멸종 위기종인 표범의 개체 수를 추적하기 위해 설치됐었다.

사진에는 날렵한 검은 고양이와 민첩한 움직임과 반짝거리는 눈빛이 담겼다. 표범 가족은 낮 동안엔 검은색으로 나타나지만, 장미 무늬는 야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다.

흑표범의 모습을 촬영한 월 버라드-루카스는 신화 속 동물로 알려진 흑표범을 사진에 담아내길 오랫동안 꿈꿔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나에게 미스터리인 동물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도 더 아름다운 동물도 없다"면서 "여러 해 동안 흑표범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나도 야생에서 흑표범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 못했다"며 감격을 전했다.

필포드 팀은 "표범 가족이 칠흑 같이 새까만 색(pitch black)으로 나타난 건 색소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멜라니즘(흑색증) 때문"이라며 "알비니즘(백색증)의 정반대인 멜라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표범의 약 11%에서 나타나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한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환경보호 운동가 플라 카움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흑표범의 목격 사례는 많았지만 직접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희귀한 흑표범이 화려하고 신비로운 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케냐 당국을 설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

## 트럼프, 장벽 예산안 서명할 듯...셋다운은 끔찍한 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연방 정부 셋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경안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CNN이 13일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잠정적인 예산안에 만족해하지는 않지만 셋다운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상세히 들여다 보려 한다고 전했다.

미 양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합의한 이번 연도 예산안은 오는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13억7500만달러 포함돼 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7억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회가 합의한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

장벽 자금을 인색하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지도 있긴 하다"면서 "셋다운이 또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셋다운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집권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공화·뉴욕) 하원 의원은 "압도적인 다수의 공화당원들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pasta@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시한 60일 연장 검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내달 1일까지로 돼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시한이 최장 2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기를 60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상 마감시한인 내달 1일까지 최종 합의문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협상시한을 잠시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튿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다음달 중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재차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한 상황. 이번 협상엔 미국 측에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측에선 류허(劉鶴) 부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다.

pasta@news1.kr

#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벨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내 생

각에는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각료회의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늦출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시한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11일~13일 차관급 회담에 이어 14~15일 장관급 무역회담을 벌인다.

sinopark@news1.kr



프랑스 와인

# 대륙이 위축되니...프랑스 와인 등 주류 수요도 '뚝'

## 작년 주류 중국 본토 수출액 전년비 14.4% 줄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작년에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酒類)의 대(對)중국 수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기둔화 때문이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인·주류수출협회(FEVS)는 지난해 중국 본토에 대한 프랑스산 주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4% 줄어든 10억유로(약 1조 2687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프랑스 입장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FEVS 싱가포르와 홍콩 지역에 대한 와인 등 주류 수출이 다소 늘어 본토 수출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 수출된 프랑스산 와인은 다시 중국 본토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약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엔 중국 정부가 부채규모를 줄이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성장 열기는 더욱 더 식었다.

그러나 FEVS 측은 "중국 본토와 홍콩·싱가포르의 수출 규모를 더하면 여전히 2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yellowapollo@news1.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걱정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마음대로  
골라본다  
\$14<sup>99</sup>**

WHP 내선  
Comcast  
Setu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sup>99</sup> |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sup>99</sup> |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sup>99</sup>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O KBS MBC SBS tvN OCN Olive OCN 24h 24h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당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 김해신공항 4년만에 재검토 동남권 지자체 흔들리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4년 전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강행했던 정부는 물론 입지선정 결과에 승복했던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쟁점이 복잡해졌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3년부터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2011년 경제성 미흡으로 무산됐다가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5년 8월 논의를 재개했으며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공항을 지지하는 경남·경북·대구·울산 지자체가 경쟁했다.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자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 방안 대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안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재검증을 거론하면서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해신공항을 고수했던 정부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공항 건설 담당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억원을 투입해 실무적인 외부검증을 마친 데다 관련 지자체의 합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신공항 계획의 수정은 수년간 되풀이한 사업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술적 실효성 외에 정무적 판단이 더



문재인 대통령(좌측)과 오거돈 부산시장

해지는 총리실에서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 경남권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린다는 점도 '가덕도 신공항'발 경남권 안배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김해신공항 결정에 승복했던 동남권 5개 지자체의 입장 변화다.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자체장은 지난 2015년 1월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용역 결과에 승복한다는 '신사업형'인 셈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흔들리면 부산 외 다른 지자체는 굳이 가덕도 신공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년간 갈등 끝에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해 결론을 내린 사업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의 결정에 따라 지역 분쟁의 불씨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신공항 재검토로 사업의 속도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신공항 사업의 표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h9913@news1.kr

#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아 나라 불륜"...2심 판결 반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전 지사의 부인 민주당원씨가 "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했던 내용으로,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때문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 봤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인터뷰 직후 다른 관계자에게 상화원 사건을 알렸다는 제 말을 1심 재판부는 믿어주셨지만, 2심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으며,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켰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5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15th - FEB. 21st, 2019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 MINI WAFFLE PANCAKE

Follow us @hmartofficial

GRAM-ABLE BRUNCH IN NO TIME! OPEN YOUR LITTLE HOME CAFÉ THIS WEEKEND WITH THIS MINI WAFFLE PANCAKE RECIPE!

다양한 색깔의 재료가 올라가 예쁘고 부드러운 식감에 달콤할까지 더해진 미니와플 팬케이크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점으로 성공사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6.99</p>	<p>Lotus Root 연근 \$1.99</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p>	<p>Kabocha 단호박 \$0.88</p>
<p>Pineapple 파인애플 \$1.99</p>	<p>Gobo 우엉 \$1.99</p>	<p>Ginger 생강 \$1.49</p>	<p>White Cabbage 화이트 케비지 \$1.29</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5oz./pkg. \$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eef Flank Steak 양치마 양지(육개장) \$6.99</p>	<p>Boneless Pork Loin 톨카송 돼지고기 \$4.99</p>	<p>TONGTONGBAY Premium Dried Croaker 동동배 명물굴비 2.5 lbs./pkg. \$16.99</p>	<p>TONGTONGBAY Seafood Mix 동동배 해물 모듬 1 lb./pkg. \$4.99</p>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성육살 \$5.99</p>	<p>Chicken Tenderloin 닭 안심 \$2.99</p>	<p>TONGTONGBAY Dried Anchovy 동동배 볶음멸치 1 lb./pkg. \$17.99</p>	<p>TONGTONGBAY Half Cut Crab 동동배 절단꽃게 2L/1.5 lbs./pkg. \$7.99</p>
<p>Beef Bones 냉동 사골 \$1.29</p>	<p>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4.99</p>	<p>TONGTONGBAY Yellow Croaker w. Roe 400-500 size 동동배 열매기 참조기 \$4.99</p>	<p>Cod Filet 대구 전갈 \$6.99</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HARU HARU Medium Grain Mix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2.4oz. x 12box /box \$10.99</p>	<p>AJINOMOTO Shumai Dumplings 아지노모토 슈마이 만두 2.5lb/12pkgs. 2\$5</p>	<p>NO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 믹스 Assorted 25 lbs. \$8.99</p>	
<p>KYONG GI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0 lbs. \$9.99</p>	<p>HA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Fresh/Kimchi/Vegetable 2.68 lbs. \$4.99</p>	<p>KADOKA Pure Sesame Oil 가도카 참기름 169 oz. \$14.99</p>	<p>HAO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고포유 밀가루 5.5 lbs. \$3.99</p>	<p>NIPPONHART Karage Chicken 니폰해 카라하게 치킨 12oz. \$4.99</p>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s...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p>JUNG'S FOOD Vegoma 정식품 베지말 Aphro(Asweet) - 150ml x 24ea./box \$10.99</p>	<p>ORION Goseomi Biscuit 오리온 고소미 11.96oz. \$3.99</p>	<p>Ceramic Pot (Flower) 일본 투나베 \$5.99</p>	<p>Earthen Pot (Mushroom) 다재무늬 투나베 \$21.99</p>	<p>Kids Mix Rice Bowl 일본산 키즈 공기 \$5.99</p>	<p>MOKMOKO Body Towel 모코모코 바디 타월 \$1.99</p>
---	--	---	--	--	---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ost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ost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513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전대 이후로 징계유예

##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후보 징계유예' 당규 반영한 듯 이종명 의총 등 절차 거쳐 최종 확정...의원직 유지 가능성

(서울=뉴스1) 강성규, 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2·27 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넘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만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이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의원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아니라 우리 당의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며 "당에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면, 의원직직 신분 문제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원회 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 총장은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

서 관리감독에 신경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따라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때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sgkk@news1.kr

# '5·18 파문' 지지율 하락 야·상승 여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 후폭풍이 아파관과 번지면서 당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재를 만난 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반짝 상승세를 보이며 지지도를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의 엇갈린 희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당 지지도를 한때 30%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1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25.7%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 양상을 보였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비롯해 60대 이상과 20대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과 세대에서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5·18 후폭풍 여파로 하락세를 맞았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하고있던 한국당의 입장으로서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2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 학생 규탄대회에서 여야 청년 대표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욕 논란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연초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정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 등 잇단 약재들로 정권 주도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은 한국당의 돌발 변수로 호재를 만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0%대를 회복한 40.1%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이종명 의원 제명 조치,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 유예 등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징계 수위가 낮

아 '국민기반'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은 전날(13일) 한국당 및 일부 보수세력의 5·18 망언 규탄 및 역사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은 야3당과 함께 청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청년 규탄대회'를 열어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여야의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4당이 5·18을 계기로 뭉치면서 국회 윤리위를 통해 3인방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역사 왜곡 처벌법 개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freshness410@news1.kr

# 꿀벌 잡은 손흥민 토트넘 도르트문트 3-0 완파

(서울=뉴스1) 맹성호 기자 = 손흥민(토트넘)이 또 한번 도르트문트를 울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18-19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선발 출전해 88분을 소화했다.

손흥민은 후반 2분 오른쪽 슈팅으로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포문을 열었고 토트넘은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16번째 득점이자 챔피언스리그 1호골을 기록했다. 더불어 손흥민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왓포드, 뉴캐슬, 레스터 시티전에 이어 4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개인 통산 9번째 득점이다. 손흥민은 함부르크(4골), 레버쿠젠(1골) 시절 포함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1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양봉업자'의 명성을 이어갔다.

후에서 열린 1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간 토트넘은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날 토트넘은 3-4-1-2 포메이션을 꺼냈고 손흥민은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투톱에 배치됐다.

maeng@news1.kr



손흥민(토트넘)이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후반 2분 선제골을 넣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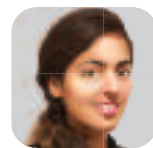
**미니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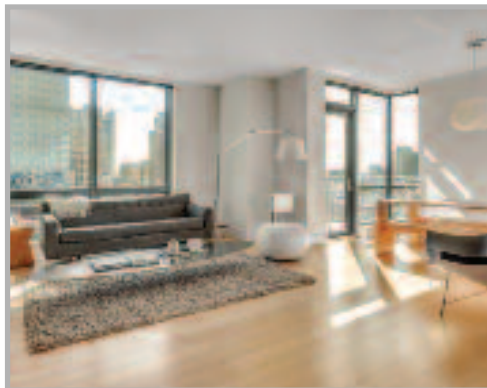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럭셔리콘도매매**

보스톤다운타운보스톤커먼 근처  
2 Beds & 2 Baths 1378 Sq.Ft  
Valet 주차, 루프탑, 수영장

Asking **\$1,650,000**



● **네일샵매매**

Price Reduced

보스톤북쪽, 3760 Sq. Ft  
18 Chairs & 20 Nail tables  
최고급시설

Asking **\$47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퀘 라이선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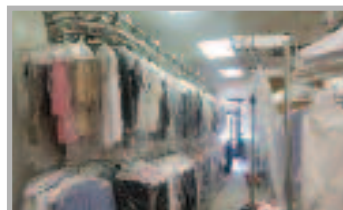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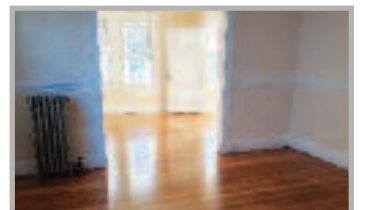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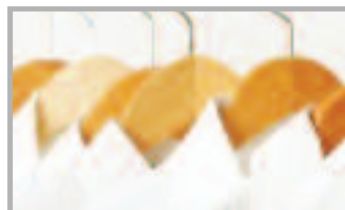
Asking **\$2000/월**



●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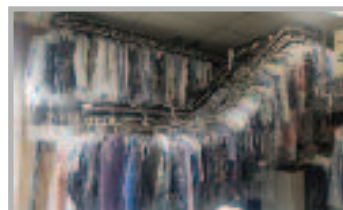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Quan Xiao**  
617.504.2125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Rental  
35 Lawrence Lane  
Lexington, MA  
Asking Price: \$3,150/mo  
Listing Agent: Lisa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71 Littleton County Road  
Harvard, MA  
Asking Price: \$2,750,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Price: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Price: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Tracy Qin Zhao**  
401.369.2227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Carter Road  
Burlington, MA  
Asking Price: \$799,000  
Listing Agent: NJ Kim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Commercial Lease  
17 Pelham Street  
Newton, MA  
Lease Price: \$4,500  
Listing Agent: Janice Le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reet  
Boston, MA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Condominium  
10 Charlesgate E - Unit 304  
Boston, Back Bay, MA  
Asking Price: \$1,1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http://bhhsneprime.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恣 (민·문)

성령(聖靈)이 친히 우리 영(靈)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後嗣)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 로마서 8:16, 17.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안해 했었다.

작년말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6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82만명의 25% 수준.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고 했다.

이날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이근재 한국회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은 “우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 달래기 위한 조치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면서 “최저임금이 2년째 30% 가까이 올라 망한 가게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와서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흥흥한 대한제국협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제대로 언급된 것이 없다”며 “장사를 해야 사는데 오늘 왜 간담회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화를 나누자고 해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다

”며 “참석자 대부분이 눈치를 보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반(反)하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청와대, 정부가 조금만 더 빨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인정했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년 1월끼리 비교한 수치에서 실업자와 실업률이 역대 최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실업(失業)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5~29세 청년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0.2% 상승한 8.9%, 청년층 잠재적 실업자 등이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도 23.2%로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1.4%나 상승했다.

통계청은 “실업자수가 지난해 보다 204,000명 늘어난 원인은 60대 이상 실업자가 139,000명 늘었고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1월에 공고된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 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인원이 모두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 컸다”고

경제활동인구는 2,745만5천명으로 1년 전 보다 22만3천명이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천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2천명이 늘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PK(부산·경남)에 예산과 인사(人事)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쏟아 붓고있다.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

현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에서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최근에 와서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여권이 PK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

恣: ①自強자강: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잡아서 자기 자신을 튼튼하고 강하게 다잡한다는 민. ②亂也난야: 어수선한 문.

이 두가지 사이에서 스스로 자亂(자난)이 괴롭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근거가 북한인데 남한의 PK에서 대권을 잡고보니 “文에서 恣”이 불안해졌을까?

文은 ①宀: 義闕의괘: 즉 하나님 삼위(삼위)께서 ②父: 治也치야: 다스릴 예 = 문: 하나님 삼위께서 다스리신다: 文.

이 文에 心: 마음 심 = 形之君明主형지군명주: 마음 심 - 쉽게 말해서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는 뜻.

恣은 (내 마음의 하나님 삼위(三位)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쉽게 그린 글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자 끝이 인(仁)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온 인자(人子) 예수님은 義闕)의 삼위분 중 두번째(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심을 밝히 심.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를 해본 결과 PK(즉 부산·코리아)에서 출생했다는 것 만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신의 확실한 출생지가 북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예산 배정에서도 정부 여당의 PK 배려가 뚜렷하다. “토건 정부로의 회귀”라는 비난에도 정부는 예비 타당성 문제를 통해 PK 지역에 남부 내륙철도(4조7천억원) 등 4개사업(6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여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였다. 대전·충남·충북은 3조1천억원, 광주·전남·전북은 2조5천억원, 대구·경북(TK)은 1조5천억원 규모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보수정부 10년 동안 특정지역에 몰렸던 예산지원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그러나 야권은 이를 “영남에서 PK를 TK와 분리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기도 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PK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고향으로 굳어질까? 恣으로...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p><b>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b>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p> <p>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p> <p><b>ASKING \$899k - 1199k</b></p>	 <p><b>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b>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p> <p>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p> <p><b>ASKING \$600,000-\$800,000</b></p>
---	--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 금주의 LISTINGS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b>ASKING \$480,000</b></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b>ASKING \$160,000</b></p>	 <p>Boston 주변의 바쁜 지역 downtown 10분거리 성업중인 laundromat</p> <p><b>ASKING \$450,000</b></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b>ASKING \$170,000</b></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amp; Spa</p> <p><b>ASKING \$375,000</b></p>	 <p>NH 대형 몰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b>ASKING \$150,000</b></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b>ASKING \$130,000</b></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b>ASKING \$170,000</b></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b>ASKING \$200,000</b></p>
--	--	--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정보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교회N연합회	781-424-5269
F자민중교회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행(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려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뉴욕)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203-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침례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선한목자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커머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 최저준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우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그레스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텝	617-787-1735
헤어 크렌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H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

###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케어	617-277-0648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보스톤 전망대

# 자작나무와 Jon Carter Covell 박사 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자작나무의 이름은 영어로 Birch tree라고 부른다.
- 개마고원에서는 뽕나무라고 부른다.
- 일본에서는 신라를 백목(白木)이라고 쓰고 시라기로 발음했다. 이는 일본사람들이 자작나무와 신라를 똑같은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작나무가 신라라는 나라의 실체라는 뜻이다.
- 자작 나무를 태울 때는 자작자작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 부패를 막고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하다.
- 껍질을 벗겨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였다.

〈팔만대장경〉

몽고의 침입을 막으려고 고려 고종 23년 (1236년)에 착수하여 고종 36년 (1251년)에 완성하였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국보로 지정되었다. 대장경판은 일부만 자작나무로 제작되었다. 일본 승려들은 한국에서 대장경 영인본이나 대장경 판을 얻어가려고 애를 써왔었다. 고려때부터 일본인들은 대장경 사본 한 질을 구하려고 20여 차례에 걸쳐 시도해 왔었다. 그들은 여러 대장경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내용에 정확하게 판각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919년 한일 합방이 되자 테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은 조선에서 첫번째 식민 작업

으로 고려 대장경을 통째로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었다. 우리에게겐 천만번 다행한 일이었다.

결혼식을 가리켜 화촉(樺燭)을 밝힌다고 하는데 자작나무 껍질을 말아서 태운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작나무가 타들어 가면서 내는 자작자작하는 소리와 그윽한 향기가 어우러져 신랑신부에게 행운의 축복을 선사해 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작나무가 없어 부득이 밀초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작나무 껍질을 태우는 화촉의 화(樺)자가 촛불을 의미하는 빛날 화(華)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Jon Carter Covell 박사는 오늘날까지 무속 신앙에 전승되고 있는 자작나무의 흔적을 북방 시베리아 종족에 대한 집단 기억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 한민족의 먼조상들이 시베리아 초원을 가로질러 남쪽의 한반도로 이주했을 때 우주수를 숭배하던 자작나무에 대한 집단 기억이 오늘날 몽고나 브리아트 민족들의 풍습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르게 자작나무 신목

우리 나라에 솟대, 당목, 신목에 성황당이 있는 것처럼 몽고, 바이칼 지역에도 솟대, 당목, 신목이 있고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어와가 있다.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태워 향을 사르고 보드카나 쌀을 뿌려 고수례를 들인다. 먼길을 떠날 때는 서낭당에 증표를 남기고 길을 떠나는 자가 나무를 형검으로 치장하거나 돌무더기를 쌓아 소원을 빌고 자연에 감사를 드린다. 제의에 쓰인 음식을 고수례로 다시 대지에 감사를 전한다. 기도의 중심에는 천신과 지신이 있고 자작나무가 있다. 브리아트 샤먼의 집 한가운데에는 "푸르게"라고 부르는 자작나무 신목이 가운데가 뿔뿔린 지붕위로 솟아있다. 그리고는 샤먼이 신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브리아트 사람의 성황당

몽골이나 바이칼 호반에서 자작나무는 그들 무속의 성수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는 기도처, 제사처 근처에는 어김없이 자작나무가 있기 마련이라고 한다. 무당이 매개자가 되어 초월적 세계로 가는 우주목이 바로 자작나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굿에 자작나무가 등장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작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 흰종이를 오려만든 지화를 무구(巫具)로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바이칼의 "바이"라는 말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샤먼을 지칭해 주는 말이고 "칼"은 골짜기나 고향을 의미한다. 합쳐서 "신들의 고향"이라는 말이 된다. 사람들은 신들의 본향인 바이칼 알혼섬의 부르한 바위를 추앙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들의 일부가 한반도로 이주하여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백두산을 불함산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몽골어로 부르한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이칼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의 중심에 자작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심청전, 공쥐팔쥐, 백조와 사냥꾼, 아바이게세르 등 끝이 없다. 아바이는 함경도에서 아버지나 어르신 이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브리아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형제였던 것이었다.



초원의 영웅 징기스칸의 어머니는 브리아트 사람이고 알혼섬이 그녀의 고향이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 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Nazarene Parish of Central District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Choosing a quality, affordab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astern Nazarene College is nationally recognized and among the top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Serving the Quincy community since 1919*



Associate's | Bachelor's | Master's  
 Traditional Undergraduate  
 Adult and Graduate Studies

*Our honors programs have over 90% acceptance rate into medical and law schools.*

**#1**  
 Money Magazine recognized ENC as the top private college in New England and #24 in the nation for affordability.



**EASTERN**  
 NAZARENE COLLEGE

23 East Elm Avenue  
 Quincy, MA 02170-2999  
 617-745-3000 • [www.enc.edu](http://www.enc.edu)



ENC is expanding higher education pathways to Asian and immigrant students in partnership with Quincy Asian Resources, Inc. To learn more visit [www.qarima.org/enc](http://www.qarima.org/enc) or call 857-334-9311.

# '캡틴마블'→'어벤져스4'→'스파이더맨2'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대한민국에서 누적 1억 명 이상의 관객수를 보유할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가 올해도 흥행 대세를 이어간다. 3월 6일 개봉하는 '캡틴 마블'을 필두로, 4월 '어벤져스: 엔드게임' 7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단 한 편도 놓칠 수 없는 최강 라인업이 완성됐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13일 올해 개봉을 앞둔 MCU 라인업을 소개했다.

올해 MCU 첫 영화 '캡틴 마블'은 기억을 잃은 과일렛 캐럴 댄버스(브리 리스)가 월드 요원 닉 퓨리(사무엘 L. 잭슨)를 만나 어벤져스의 마지막 희망 '캡틴 마블'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마블의 차세대 히어로 캡틴 마블의 탄생을 그리며, 90년대를 배경으로 그 어떤 MCU 영화보다 앞선 시대를 다뤄 다른 작품들과의 연결고리 역시 수많은 추측 속에 주목 받고 있다.

캡틴 마블과 닉 퓨리의 액션과 유머를 모두 장착한 콰터 플레이를 예고하며, 월드 국장 닉 퓨리가 한쪽 눈을 잃은 사연, 어벤져스를 결성한 계기 등 마블의 비극적 배경 등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에서 새로운 히어로 캡틴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출연이 예고된 만큼 두 작품은 나란히 전 세계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4월에는 '캡틴 마블'에 이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마블 최강의 빌런 타노스(조슈 브롤린)에 의해 세계의 절반이 사라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공개되는 콘텐츠마다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캡틴 마블과 함께 앤트맨(폴러드), 호크아이(제레미 레너) 등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지 않았던 히어로들이 출연해 위기의 어벤져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지 전 세계 언론과 관객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 2편 연

속 국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7월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떠난 유럽 여행에서 새로운 빌런들과 정체불명의 인물 미스테리오(제이크 질렌할)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다.

2017년 7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이어 2년 만에 돌아오는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로, 고향 뉴욕을 떠나 유럽으로 간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친구들의 모험을 예고한다. 런던, 베니스, 프라하 등 유럽 곳곳을 배경으로 스파이더맨의 활약을 보여줄 예정이다.



## '열혈사제' 김남길, 조폭 때려잡는 사제라니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어디서도 보지 못한 '열혈사제' 김남길이 온다.

오는 15일 처음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는 위트 넘치는 필력을 자랑하는 '김과장' 박재범 작가와 '똥치', '똥속 말' 등 웹메이드 드라마를 연출한 이명우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혈사제'는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바보 형사가 살인 사건으로 만나 어영부영 공조 수사를 시작하는 익스트림 코믹 수사극이다. 김남길은 극중 사제답지 않은 까칠함과 강으로 무장한 신부 김해일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그동안 영화, 드라마에서 그려졌던 '사제,'

신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캐릭터로 찾아와,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이야기와 매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티저 영상들을 통해 공개된 사제 김해일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김남길은 새로운 사제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까칠하면서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김해일의 모습을 거침없이 표현하며 그만의 매력을 예고했다. 진지와 코믹의 기묘한 완급조절과 캐릭터 소화력까지, 배우 김남길만의 장점이 뚜렷이 빛났다는 반응이다.

'열혈사제'는 오는 15일 처음 방송된다.

ichi@news1.kr

2월 17일 - 2월 2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b></p> <p>●운수: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 빨리 쉬거나 약을 복용하세요. 무리하고 버티다가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손해 보게 됩니다. ●애정: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자신을 잘해야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p>	<p><b>소띠   열린 마음으로</b></p> <p>●운수: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답해줄 것입니다. ●금전: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더 가까워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b>범띠   한 걸음 내딛기 전에</b></p> <p>●운수:적진인지도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아무리 급하더라도 미리 만약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애정:사랑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게 되는 것보다 알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3일 길일. 17, 19일 주의.</p>
<p><b>토끼띠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b></p> <p>●운수: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실행하지 않는 매출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힘들수록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애정:하루라도 빨리 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 상처만 커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용띠   선긋기를 잘해야</b></p> <p>●운수: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빼놓고 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금전:선긋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르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애정:부부문제나 이성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뱀띠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b></p> <p>●운수:어느 날 급작스럽게 사고가 찾아오듯이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금전:매상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사람도 돌아가는 상황이 나아지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애정: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말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b></p> <p>●운수:정확하게 사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 등으로 바뀌진지도 모르고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전:내 뜻과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잘되었지만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애정:너무 깊이 알고 싶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양띠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b></p> <p>●운수: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동에 박차를 내보세요. 모처럼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꼭 만나야 될 인연을 하늘이 묶어줄 것입니다. 우연보다 더 강한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b>원숭이띠   새로운 길이 열릴</b></p> <p>●운수: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지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상대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한사람의 말만 들릴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b>닭띠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b></p> <p>●운수: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애정:가족 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b>개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b></p> <p>●운수: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때가 아니니 잘 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금전: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0, 21일 주의.</p>	<p><b>돼지띠   평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b></p> <p>●운수: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자신의 이익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자신에 득이 됩니다. ●애정: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7  
올스톤에 있는 오빠스시입니다. 스시일 배우면서 오래 같이 일하실분,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59-8429

8/17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ㅈ. 781-860-0171

# '트래블러' 이제훈x류준열, 쿠바로 떠난 혼돈의 여행자들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오는 21일 오후 11시에 처음 방송되는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트래블러'(부제: 배낭맨 혼돈의 여행자)는 배우 이제훈과 류준열이 진짜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의 간섭 없이 스스로 여행의 모든 순간들을 모험하고 만끽하면서 비로소 스타의 삶이 아닌 배낭여행자의 생활을 즐긴다.

13일 공개된 '트래블러'의 공식 포스터는 총 2종으로 쿠바를 여행하는 이제훈과 류준열의 생생한 모습을 담았다. 쿠바의 거리를 배경으로 빨간 올드카에서 포즈를 취한 두 사람의 모습은 톱스타의 화려함이 아닌 여행자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버전의 포스터에서는 내리쬐는 태양 아래 커다

란 배낭과 함께 쿠바의 한 도로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낮선 나라 쿠바로 떠난 이제훈과 류준열은 2주간 여행하며 체 게바라의 자유와 혁명을 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제작진의 도움 없이 발품 팔아 숙소를 찾고, 먹고 자고 입을 것들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흥정하며 여행을 마쳤다. 방송에서는 배우의 옷을 벗고 그간 내보이지 못했던 낯것의 생각과 잔잔한 고백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트래블러'는 여행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진이 탄생시킨 프로그램으로, '아는 형님'의 최창수 PD와 홍상훈 PD가 연출을 맡았다. 최창수 PD는 유라시아를 횡단 여행하고, 포토에세이 '지구별사진관'을 출간하기도 한 여행 전문가. 또한 작가진으로는 718일 간 30여 개국을 여



행하며 여행에세이 '서른, 결혼 대신 야반도주를 출간한 김멋지, 위선임 작가가 함께한다. 첫 방송은 오는 21일 오후 11시. ichi@news1.kr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SKY머슬' 박나래부터 엠버·주이까지 출연... '운동 코디' 변신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유세윤, 박나래, f(x)(에프엑스) 엠버, 권혁수, 우주소녀 은서, 모모랜드 주이가 운동 코디로 변신한다.

오는 23일 오후 처음 방송될 JTBC '위대한 운동장: SKY머슬(이하 SKY머슬)'은 연예계 대표 운동러들이 코디네이터로 변신해 즐겁게 체력과 몸매를 관리하고 싶은 참가자들과 함께 운동하며 동기를 부여해주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다.

13일 'SKY머슬' 측에 따르면 '운동 특별 전

담반'으로 변신하게 된 운동 코디네이터는 총 6인이다. 연예계 대표 애플힙을 보유한 '운동하는 빠그맨' 유세윤, 숙취 해소도 운동으로 한다는 '의외의 운동러' 박나래, 농구 보드 따라 톤을 섭렵한 자칭타칭 운동 마니아 f(x) 엠버, 식욕으로 힘들어하는 참가자들을 진정성 있게 도와줄 '먹장 배우' 권혁수, 발군의 사격 실력으로 증명한 '운동신경 끝판왕' 우주소녀 은서, 힘든 운동 시간도 상큼하게 만들어 줄 '인간비타민' 모모랜드 주이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seunga@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홀로그램이 솔로그램?

라틴어 sol-은 원시 인도유럽어 어근에서 '전체, 잘 보관된'이란 의미를 가지는 어근이다. 전체는 하나이니까 sol-은 '하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주자를 soloist라 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이 어근은 '하나'를 뜻하는 또 다른 인도유럽어 어근 uno-와 더불어 유럽의 많은 언어들에서 수많은 파생어를 만들어낸다.

우선 solid는 '나누어지지 않은, 단단한' 등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파생된 solidarity(연대), consolidate(연합하다), solitary(외로운), solitude(외로움), solitaire(혼자 하는 카드놀이) 등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soliloquy이고, 둘이 하는 말은 dialogue이다. 물론 mono-란 접두사도 '하나'를 뜻하니까 '독백'을 monologue라 한다.

라틴어 어근 sol-이 '잘 보관된'이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어휘들도 파생되었다. 이를테면 salubrious, salutary는 '건강에 좋은'이고, salute는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인사말로 쓰인다. 해난사고 등에서 사람을 '구하다'란 의미의 salvage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다

. '구하다'란 동사 save도 원래는 위협에서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soldier란 단어는 두 가지 어원설이 있다. 하나는 sol-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즉 봉급을 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을 의미한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solidus 즉 로마시대의 동전을 받는 병사란 설이다. '엄숙한'이란 단어 solemn도 전체를 의미하는 sol-에서 만들어졌다.

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라틴어 /s/는 그리스어 /h/와 교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라틴어 solo-는 그리스어 holo-와 대응한다. holism은 '전체론'이고, holistic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극악한 인종청소였던 홀로코스트는 말 그대로 전체를 불살랐다는 뜻을 가진다. holo-가 '전체'이고, caust-는 '불태우다'란 의미이다. Holocene은 우리말로 '완신세(完新世)'라고 번역하는데 한자를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근으로 추측하자면 지질학상의 하나의 시대란 뜻일 게다. holograph는 하나의 글자란 뜻이니까 '자필 문서'란 뜻이다.

홀로그램 즉 hologram은 헝가리 태생의

영국 과학자였던 데니스 가버가 고안해낸 용어이다. 197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삼차원적 의미에서 피사체에 쏜 레이저 광선이 '하나의 완전한' 입체상을 그려낸다는 의미에서 hologram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사소한 지적질이지만 -graphy와 -gram은 둘 다 '그림, 문자'를 의미하는 같은 말이다. 그런데도 holography와 hologram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사용자 마음대로이다.

라틴어 sol-이나 그리스어 holo-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catholic이다.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이 단어는 kata-(about)란 접두사와 -holic(whole)이란 어근의 결합이다. 따라서 그 뜻은 '편협하지 않고 전체를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정도가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카톨릭 신부들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sol-이 또 다른 라틴어 어근 sol-과 모양이 같다는 점이다. solarium(태양)에서 온 sol-은 sol(태양), solar(태양의), solstice(하지, 동지) 등

에 남아있다. 이탈리아 가곡 (O Sole Mio)에서처럼 어근 그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sol- 역시 그리스어에서는 helios가 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helium이란 물질은 바로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틴어 /s/와 그리스어 /h/의 대응관계는 여러 단어에서 나타난다. 전에 살펴보았던 six와 hexa-, septa-와 hepta 뿐만 아니라 same과 homo, semi-와 hemi-에서도 볼 수 있다. 전에 다루었던 lesbian이 순전히 레스보스탄 섬에 사는 여성들이 서로를 사랑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인데 비해, homosexual은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절반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근 semi-는 그리스어에서 hemi-인데, 이는 또 다른 어근 demi-와 같다. semifinal은 결승전의 반이니까 준결승전이다. hemisphere는 구의 반이니까 반구이다. demi-도 '반'이란 뜻이니까 demigod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거나 동물인 존재를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배우 Demi Moore가 절반은 무어인이란 뜻은 아니다.



# 불판 바베큐&라운지

## 초대박 한식 BBQ 부페 오픈

푸짐한 각종 생고기, 양념고기, 밀반찬류, 야채, 해물까지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들과 불판에서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Price: Adult \$37.00  
Kids 1 \$8.95  
Kids 2 \$16.95



9시 이후: Happy Time Discount    매주 수요일: Lady Night Discount  
가라오케룸 1인당 \$32/hr 제공

영업 시간: Mon-Wed 4:00 - 11:00  
Thur-Sun 12:00 - 11:00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 대한민국 안마의자 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BODYFRIEND**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3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3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뇌피로 회복속도 <b>8.8</b> 배증가	집중력 지속력 <b>2</b> 배증가	기억력 <b>2.4</b> 배증가
----------------------------	-------------------------	-----------------------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S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팬텀블랙 브레인



팬텀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8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분노(anger)의 물꼬뜨기...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편안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것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이것은 아닐까? 내 속의 '화(분노)'를 잘 다스리는 일 말이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에서는 서로 기본예의를 지키느라 별 탈이 없지만,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안함과 함께 기대한 만큼에 대한 서운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 싫인가 싶다. 이렇듯 가까운 관계일수록 편안하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방을 쉬이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수심가측(水深可測)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한 지붕 아래에서 25년을 살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남편의 속과 남편이 다 알지 못하는 아내인 내 속이 존재하지 않던가. 그렇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는 서로 각기 다른 존귀한 존재인 까닭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옳은데 너는 내 옳음을 몰라준다는 데 있다. 상대방이 내 마

음을 몰라주니 속이 답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도 남도 아닌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이나 큰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불씨가 되어 나중에는 끄기 힘든 큰불이 되기도 한다. 무작정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부부간에 잦은 싸움은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성장에 불안감을 주고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다툼이나 싸움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잘잘못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이들 앞이라고 쉬쉬거리며 참는 것이 제대로 된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분노(anger)는 보통 약자에게서 더욱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있을 때 더욱 쌓이는 것이다. 어느 장소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그런 결과가 반

복되었을 때 분노는 쌓이게 된다. 자신을 따돌림을 어떤 자리에서도 표현하며 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속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삭이고 참고 견디며 사는 이들도 아직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자기표현이 확실해 좋다.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화를 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어울리는 말일까. 시도때도없이 발칵,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그 곁의 사람들조차 그 사람의 그 화에 시들해지고 나잇값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렇다, 정말 그 화보다 내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 역시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일 때가 있다. 어른 노릇하기가 어찌 그리 쉽지만 하겠는가. 아랫사람 앞에서 제대로 화를 잘 내야 윗사람 대접받는 세상 아니던가.

화(분노)를 제대로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멋쟁이는 아닐까 싶다. 그것은 그만큼 보통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화를 제대로 못 내고 살기 때문이다. 소소한 개인적인 이기적

인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우습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닌 그리고 그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화(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설령, 그 분노로 자신 개인에게는 손해가 올지라도 말이다. 이렇듯 정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 그의로운 화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불씨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대한 제대로 된 화나 분노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입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간에 감정으로 시작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로에게 아픈 상처만 남기고 서로를 잡아먹는 아니 자신을 잡아먹는 행위일 뿐이다. 제대로 된 분노(anger)는 서로를 살리는 에너지로 쓰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으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털어놓는 것이다. 싸움을 위한 분노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어놓는다면 저절로 흘러간다. 트인 물꼬를 따라.



## 한담객설閑談客說: 위수령衛戍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수령이란 어마어마한 단어였다. 그게 1971년이 라 했고, 군병력이 투입되었다고 했다. 새내기가 될 알았겠나만, 써늘한 바람이 스치는듯 했던 기억이다. 그럴테니, 나는 운동권은 아니었다. 아예 그런 말도 생소했더랬다.

연이어 긴급조치. 초법적 조치라 했는데, 그게 여러번 발령되었더랬다. 몇번인가 세어보지 않았으니, 이 또한 기억할수는 없다. 선배들은 줄여서 '긴조의 시대' 라 했다. 선배들의 입에선 자주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오르내렸다. 이쯤하여 긴급조치 시절이었던 거다.

아마 1975년 늦겨울이었을 게다. 봄에 발령되었던 긴급조치 기간이었던가 싶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가을학기에도 예외는 없었다. 학교는 일찍 문문을 닫았다. 겨울방학이 턱없이 일찍 시작된다. 그러니 그해 겨울방학은 길고도 길었다. 나야 현책방 거리를 어슬렁거렸고, 몇권 과월호 월간지를 주어 읽곤했다. 방안 야랫목은 따뜻했는데, 청춘은 고리타분했다.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아직 추웠기 때문이다. 봄에는 군대에 가야했다.

시인 김남조의 시 생명이다. 여전히 추운 몸이라 했고 함박눈 눈송이로 했다. 나한테 그해 겨울이 그랬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김남조, 생명중에서)

그날은 보스톤 겨울처럼 우중충했다. 늦은 눈이라도 내릴 것인가? 한국에선 여전히 대학 겨울방학이 길고도 긴가? 하지만 그 해에도 어김없이 봄은 왔다. 그리고 이른봄 나는 입영열차를 탔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 1:4)

지난 가을인가 보다. 한국 신문에서 읽었다. 위수령衛戍令이 폐지되었다는 기사였다. 귀에 익기는 익은 말이었다.

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지역의 경비와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해 행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제17945호에 근거한다. 군부대의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집회 시위의 통제에 오용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했던 사례다. (위키피디아)

학교에 입학하면서, 선배들한테 들었다. 위

보스톤 한인야구 리그 선수모집

# TRYOUTS

March 2th 2019, 11AM

Location:  
Extra Inning (Watertown)  
100 Paker St. Watertown MA.

Contact:  
[bostonkbl@gmail.com](mailto:bostonkbl@gmail.com)



보스톤 한인야구회  
[www.bostonkbl.info](http://www.bostonkbl.info)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 이자율과 시세

부동산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게 맞는건지가 우리 모두의 갈등이다. 나에게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기도하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신에게 물어 보세요. 제가 그걸 알면 매일 이리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난 1993년에 부동산을 시작했다. 93년은 마켓이 좋지 않았다. 내가 마켓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거다. 내가 이때 부동산을 많이 사 들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도한다. 위기가 기회 라는 말이 말이야 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다.

그러던 마켓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올랐다.

그 시대에따라 조금씩이 이유는 있다. 97년부터 2007년까지 무조건 30%만 다 운하면 어느 은행에서든지 융자를 해주었다.

이게 서브프라임을 가져 오게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부터 시작한 서브프라임 때문에 집 매매가 적어졌다.

이 사태가 2011년 2012년까지 매매를 적어지게 만들었고 또 다시 말하면 이 시기가 투자자들한테는 기회였다.

그러하던 마켓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호황을 누렸다. 내가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무지 많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마다 이유가 있는데 2012년에 이자율은 3% 정도 였다.

이 이자율은 2016년까지 지속 됐고 지금은 좀 오른 상태이다.

이자율이 올라야 마켓이 좀 안정이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표현하는 안정이란 지난 5년간 집이 하나가 나오면 오퍼가 10개 20개씩 들어 갔다.

사는 사람들은 \$500,000 에 나온 집을 \$600,000에 사야 했고 은행 appraisal 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보스톤은 겨울이 추우므로 항상 봄마켓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올해도 사고 싶어하는 바이어들은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아마도 계속 집값은 올라 갈거 같다는게 내 판단이다.

각 개인에 credit income에 따라 이자율은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좋게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이 살 집은 No Matter What 사는게 정답이다.

왜 rent로 본인의 인컴을 남에게 주는가?

집을 사게 되면 원금도 다달이 갚게 되고 tax deductible도 받게 되고 most of all 본인 집에서 하루 하루를 편하게 살수 있다.

모든 계산을 했을 때 본인 살 집은 rent

하는 것 보다는 사는게 100% 맞는 답이다.

부동산을 사는 시기는 맞는 답이 없다.

93년도 마켓이 안 좋았을 때 사신분들 2012년에 사신분들 다 이제는 부동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3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직 남아 있다”

위의 기록이 전보다. 그것도 설총薛聰전에 팔려 있는 기록이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설화를 모은 설화집인 계림잡전鷄林雜傳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부분도 있다. 성덕왕 3년은 704년이다. 위의 기록으로 인하여 김대문이 지낸 최고위 관직이 도독이었을 거라고 믿는 후학들이 대다수이다. 많은 기록에는 화랑세기가 35년간 재위한 성덕왕 대에 집필되었다고 넓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화랑세기를 비롯한 어느 사서에도 정확한 연도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화랑세기 집필을 완성한 연대를 704년 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한데, 김대문이 한산주 도독을 얼마동안 재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선뜻 동의하기가 망설여진다. 화랑세기의 발문에 따르면 “불초자식이 공무의 여가에 낭정郎政의 큰일大者을 모으고, 파맥派脈의 정사正邪를 밝혀 아버지의 계고稽古의 뜻을 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156) 이 기록으로 인하여 화랑세기가 이미 한산주 도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집필되었거나, 도독 재임 중에 완성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화랑세기(필사본)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집필을 완성한 연대가 좀 좁혀짐과 동시에 김대문의 관직이 한산주 도독이 마지막(최고위에 오른...) 관위가 아닐 가능성 까지 있다. 19세 풍월주 김흠순 전에 보면 그의 아홉째 아들인 원훈

元훈이 중시中侍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신라본기 성덕왕 원년, 702년 9월조)를 보면 “아찬 원훈元訓을 중시로 삼았다” 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이듬해인 성덕왕2년 7월조에 “중시 원훈이 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아찬 원문元文을 중시로 삼았다” 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록들로 봤을때 화랑세기의 집필 완성은 703년 이전이 될 수는 없다. 704년에 한산주 도독으로 부임한 김대문의 재임기간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한산주 도독으로 있을때 부친이 탈고하지 못한 화랑세기의 집필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부친 오기공이 얼마나 작성하고 김대문이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한산주 도독 재임시 탈고를 했는지 또는 타직으로 이직하여 마무리했는지의 기록도 없다. 물론 한산주 도독 이후의 관직 기록은 없다.

155) 제29대 태종무열왕(재위 654 ~ 661년), 제30대 문무왕(재위 661 ~ 681년), 제 31대 신문왕(재위 681 ~ 692년), 제 32대 효소왕(재위 692 ~ 702년), 제33대 성덕왕(재위 702 ~ 737년), 제34대 효성왕(재위 737 ~ 742).

156) 불초자식은 김대문 자신을 가리키고, 낭정의 큰일이란 화랑도의 편제와 조직과 구성 등을 의미한다. 파맥은 설화랑의 운상인,

문노의 호국선 등의 계통과 진골정통, 대원신통, 가야파 등의 파맥으로 그 내용이 10세 풍월주 미생전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화랑도들은 수 많은 전쟁에 참전하여 삼국통일을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하지만 때때로 정난에 참가하여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진지왕 폐위 때도 문노가 이끄는 화랑도의 세력이 한 몫을 했지만, 대표적인 정사正邪의 예는 김흠돌이 흥원과 진공 등과 함께 모반을 하였을때 화랑들은 김흠돌과 와 진압군인 오기공 파에 나누어 가담했다.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으며, 그의 모반죄로 왕비인 딸도 폐출되었고, 계비로 김흠운의 딸을 들었으며 그가 신문왕후이다. 제32대 효소왕과 제33대 성덕왕은 신문왕후의 소생이다.

김흠운과 김흠돌은 형제이며 그들의 아버지는 김달복이고 어머니는 김정희이다. 김정희는 김서현의 딸로 김유신의 누이이다. 김흠운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 요석공주의 첫 남편이었으며,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후 요석공주는 원효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았다. 이 설총전에 김대문의 기록이 ‘결살이’ 를 하며 삼국사기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 2018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7)

###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2)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는 2년간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규정된 내용인데,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이 규정을 풀어보면,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당초의 예정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주된 목적이 위 셋째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하며

여섯째: 면제대상 소득은 초청된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에 한하며,

일곱째: 면제기간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이다.

**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이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 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거주자인 사람의 미국 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는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건은 당초 예정된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니다. 즉, 처음부터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은 당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전체 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3년중 처음 2년의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대상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한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한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소득 중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예를들면,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진다.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인 연구원 등이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면제된다. 즉, 2016년 10월 1

일에 미국에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의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016년 10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온 연구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고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데,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가 된 2018년도에도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4)

# 어뉴이티(Annuity)의 비밀

작년 12월 말 주식시장이 최고점에서 거의 20% 하락했다. 모든 방송, 신문, 인터넷은 주식하락을 연일 보도했다. 투자자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이 후회막심이다. 이러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원금은 보장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투자 돈이 불어났다.' 고 하는 금융상품을 선전하면 투자자 대부분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어뉴이티 판매가 2017년 3분기와 비교해서 2018년에는 11%가 증가했다. 2018년 한 해에는 어뉴이티에 \$230 Billion이 투자된다고 월 스트리트(What to consider with annuities, Baily Mccan, Feb. 3, 2019, WSJ)지는 발표했다.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수입이 보장된다는 유혹에 많은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재정설계사는 어뉴이티를 파

는 세일즈맨(Salesman)을 당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중고차를 파는 세일즈맨이 자동차의 문제점을 설명하는가?' 여기에 대답은 자명하다. 어뉴이티를 파는 보험인 100%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신용의무(Fiduciary Duty)가 전혀 없다. 한마디로 본인의 이익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다.

모든 투자는 투자경비가 부과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뉴이티를 파는 사람은 수수료(Commission)와 매년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매년 받는 돈의 액수가 문제이다. 책정되는 금액은 투자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결정한다. 보험회사가 주는 연금 액수는 회사의 이익금과 모든 경비를 분명

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준다. 보험회사는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투자자는 기억해야 한다

어뉴이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Annuitization)한 후 연금을 받다가 몇 개월 후 사망하면 어뉴이티에 투자된 모든 돈이 사라진다. 이점을 투자자가 질문하면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며 남은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연금 수령자가 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또한, 연금 수령 액수는 한 번 정해지면 물가상승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고정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투자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 시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투자의 '만병통치약' 처럼 선전한다.

재정신문은 끝으로 투자자에게 부탁한다. 어떠한 이유로 어뉴이티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모든 경비를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Get a full accounting of cost in writing)하라고 말한다. 우리 한인들은 이런 부탁을 매우 어려워한다. 그러나 나의 투자 돈은 평생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제대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고로 어뉴이티가 꼭 필요하다면 벵가드(Vanguard)나 피델리티(Fidelity) 어뉴이티를 추천한다. 어뉴이티 판매에 수수료가 없고 계약을 파기해도 벌금(Surrender Charge)이 없다. 매년 부과되는 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어뉴이티에 투자하기 전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 적체

지난 1월30일을 기준으로 이민적체가 꽤 심한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총적체(Gross Backlog)**는 이민국이 목표로 정한 시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신청서들의 수를 말하며 **실제적체(Net Backlog)**는 총적체 신청서 중 현재 심사 대상이 아닌 신청서의 수를 뺀 것을 말합니다. 즉, 추가서류제출이 요청되는 등의 신청서들은 추가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2018년) 4월 이민국(USCIS)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2017회계연도의 실제적체(Net Backlog)는 약 230만 케이스였다 합니다. 이는 이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2004회계연도의 170만개와 2004회계연도의 150만개를 훌쩍 뛰어넘는 적체 기록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의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의 수는 약 4%정도 증가한 반면 실제적체 수는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를 비교했을 때, 가족초청 이민신청(I-130)은 7.7개월에서 9.7개월로, 시민권 신청은 8.1개월에서 10.2개월로, 가족초청 영주권(I-485 family-based)은 8.4개월에서 11.1개월로 모두 25% 이상씩 심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원인

이민관련 신청서 심사의 적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 전 정권들에서도 문제였으니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번 정권에서 계속해서 적체의 기록들을 갈아 치우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적체는 일반적으로 신청서의 수,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들의 수준, 각 정권의 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청서의 숫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고 이민국 직원들의 수준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적체의 신기록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상시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주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작과 함께 몇가지 이민국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결정(prior decision)을 존중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습니다. 비이민 비즈니스와 관련된 신청서 심사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이 정책은 주로 동일한 고용인이 동일한 직원의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중요한 점만 다시 확인하고 이미 확인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연장신청도 처음 신청서와 같이 똑같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심사가 끝난 사항들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가 중복됨으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가뜰이나 가족초청 영주권과 시민권 인터뷰로 일손이 모자란 각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 더 과부하를 주게 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Extreme Vetting 이

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이민부문에서 이 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로 심사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국가안보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 보다 국가안보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8년 2월부터는 이민국의 정책서(Mission Statement)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개념을 아예 삭제해 버렸고 신청인에 대해 고객(customer)이란 호칭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신청인(Applicant)으로 지칭합니다. 이렇게 바뀐 Mission Statement 를 토대로 이민국은 거부된 신청서의 신청인들에게 추방재판 출석 요청서(Notice to Appear)를 남발하고, 학생비자 신분자들의 신분유지를 더 까다롭게 했으며, 특히 가족초청 이민심사의 경우 인터뷰 당일에 신청인을 체포하고 추방절차에 넘기는 사례들을 이 전 어느 정권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청서 심사인력들을 이민집행(enforcement)쪽으로 이전 시키고 있습니다.

적체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완성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위의 정책들이 오히려 미국을 보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실시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국은 점점 더 심사과정, 적체 신청서 수 등에 대해 감추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회에 제출된 적체숫자가 어떤 방법으로 도출된 것인지, 이민국이 정한 각 신청서들의 목표 심사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설정됐는지, 새로운 정책들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 대책

신청인의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고 이민국 소식을 기다리는 수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이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장난으로 이민신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심사되서는 안됩니다. 더더욱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휘둘려서도 안됩니다.

국회는 이민법을 제정하고 이민국을 만드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이민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service-oriented agency) 이민관련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각개인이 노동을 허가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인도적인 보호를 받거나 다른 필수적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센터 1-877-689-1541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Comfort-Mate™**

-  **쾌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최우 온도를 각각 17~65도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분라난방 기술로 서늘기 원하는 최적의 온도에서 쾌적한 수면을 즐기세요
-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무단행위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완성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기세요
-  **쾌적한 수면을 통한 건강한 삶**  
전지마와 호스가 없는 무독성 소재의 매트와 수면 소지에 대한 카바가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  **2년 무상 품질 보증 프로그램**  
경동 나비엔 마루방인에서 모든 재물을 2년 무상 보증해 드립니다



• 한국 보일러 제2사 중 제일 매출액 144,201.7억 원(2017년) 운영권(2018년) 공시자료 기준 | 한국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5.8% 차지(2018년 상반기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폴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성업 중인 동양식당, 캠브리지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연매상 \$500,000 매매가격 \$150,000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폴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외곽 동양 식품점, 술, 로타리 연매상 \$800k, 매매가격 \$100k+스탁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뉴턴 지역 렌드로멧 연매상 \$18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랜트

## 마음대로 골라본다

# \$14<sup>99</sup>

**Plus 상품**  
방송 3사  
**\$14<sup>99</sup>**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sup>99</sup>**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sup>99</sup>**

\*전상품 무약정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